

지역 소식통

정읍, 재해위험 수목 제거

정읍시가 강풍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위험 수목 제거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시민 혼자 힘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비 입차 경비 또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수목 제거 신청은 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위험 수목을 신고해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거치면 된다.

현지 확인 후 작업 기준에 맞는 수목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자는 재해위험 수목 제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목은 주택이나 모정에 연결된 나무가 강풍으로 넘어져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수목이다. 단, 마을 경관수 가지치기와 농경지 피해목 제거, 개인 조경수 제거는 대상목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재해위험 수목 제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 발대식

고창군이 축산악취개선 등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18일) 오후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 발대식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설명회를 열었다.

고창군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고창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축산환경개선TF팀에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악취가 사라지는날'까지 매일 확대 운영된다.

협의체는 축산환경관리원을 중심으로 축산 환경문제, 추진 실태점검, 주민갈등 조정과 악취개선 컨설팅 등 축산악취에 총괄적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향후 2개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축산악취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높을고창' 브랜드 마케팅 추진

군, 고품질 농특산물 확대·이모티콘개발·브로셔 제작 등 이미지 구축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높을고창'의 본격적인 소비자 홍보와 시장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이 추진된다.

먼저, 올해 브랜드 인증품목을 딸기, 지주식감, 고구마, 고추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0개 품목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창군의 다양하고, 고품질 농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농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을고창 이모티콘 개발, 디지털 브로셔 제작, 라이브커머스 판매, 온라인 경매행사 등이 준비되고 있다.



'높을고창' 수박

여기에 주요 소비처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광판 광고, 백화점 출시행사, 버스광고, 드라이브스투 판매행사 등의 현장 홍보를 통해 '높을고창' 브랜드를 각인시켜 나간다.

특히 브랜드관리위원회 강화, 생산농가 품질교육, 포장재 지원 등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리체계에도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고창군은 높을고창 브랜드로 수박, 멜론, 친환경 쌀을 계절별로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CJ the market(식품전문 쇼핑몰)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최고가에 팔리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해 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비자들이 높을고창 상표가 부착된 농산물이라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내 농가의 고소득 창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지원부 일제 정비

정읍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명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장부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

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장부의 기능이 상실되어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부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86,224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사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부안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400만원(총 10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선정될 경우 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에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정원사 교육생 50명 모집

정읍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읍 만들기'에 동참할 시민정원사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제3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교육 수료 후 정읍시 녹지관리 분야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3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숲타마을에 소재한 꽃담원에서 20주차(총 80시간) 운영된다.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 일수 중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수료 이후에는 공무원이나 가로수 등 정읍시 녹지관리 분야에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다양한 주민참여 녹화사업에 활동해야 한다.

교육비는 1인당 90만원으로 정읍시가 80만원을 지원하고, 1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는 교육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꽃담원(songs105@hanmail.net)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열린행정구현에 세심한 노력을"

시민소통위원회 청정활력분과 20명 위원과 시정발전 간담회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마주 앉고 지역 발전 가속화 방안과 현안 사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소통위원회 청정활력분과' 위원 20여 명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정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추진된 시정발전 간담회는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7기 시정 핵심사업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발전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의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시장과 시민소통위원회 청정활력분과 위원들은 지역 현안에



정읍시는 지난 19일 지난 1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청정활력분과'와 시정발전 간담회 개최했다.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지역 민생 경제 대책, 주요 현안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읍 미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일 정읍시 애환운동본부로 시작으로 '통장협의회장단, 새마을지회 등 12개 사회단체 임원과 순차적으로 시정발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